

2017 해남 군곡리 패총 발굴조사

약 보고 서

2017. 11.

목 차

I. 조사개요	03p
II. 유적의 위치와 환경	05p
1. 자연·지리적 환경	05p
2. 고고·역사적 배경	06p
III. 조사내용	09p
1. 유적층위	10p
2. Pit별 조사내용	12p
IV. 조사단의견서	21p
출토유물 현황	23p

I. 조사개요

1. 조사명 : 해남 군곡리 패총 발굴조사(허가 제2017-0957)
2. 조사지역 : 전남 해남군 송지면 군곡리 940·945·946번지 일대
3. 조사면적 : 600m²
4. 조사기간 : 2017년 7월 21일 ~ 11월 20일(현장조사 25일)
5. 조사기관 : 목포대학교박물관

6. 조사 경과 및 사유

군곡리 패총은 1986년부터 1988년까지 목포대학교박물관과 광주박물관에 의해 3차례 발굴조사 되었다. 그 결과 조개무지의 연대는 기원전 2세기~기원후 3세기에 형성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 당시 생활상을 밝힐 수 있는 유물뿐만 아니라 중국-한반도-일본과의 교류를 나타내는 외래유물들이 다수 출토됨으로써 고대 백포만 일대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유적의 전체 면적(83,569m²) 중 패각층 일부(약 2,000m²)만이 조사되어 유적에 대한 전모를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발굴조사를 통하여 유적의 성격규명과 정비·복원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학술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7. 조사단구성

• 조사 단 장	김건수(목포대학교박물관장)
• 자 문 위 원	최성락(목포대학교 교수, 문화재위원) 이정호(동신대학교 교수, 문화재전문위원) 조근우(마한문화연구원장)
• 책 임 조 사 원	정영희(목포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실장)
• 조 사 원	김영훈(목포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사)
• 준 조 사 원	강귀형(목포대학교박물관 조교)
• 보 조 원	배형곤(목포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원)

8. 조사방법

1) 구릉의 동쪽 정상부(945, 946번지)에 전면 체토 후 10×10m Grid 7개를 설치하여 전체적인 유구분포 범위를 확인한 후 유구 밀집도가 높은 S4E4와 S4E3에 1m의 폭을 남기고 8×9m로 전면조사를 시행하였다. 나머지 S4E2, S2E2, E2, 0(기준)는 2×8m로 탐색 트렌치를 설치하여 유구 유무를 확인한 후 유구가 분포할 것으로 추정되는 표토층을 전면 조사하였다.

2) 구릉의 중앙 경사면(940번지)에 전면 체토 후 10×10m Grid 2개를 설치하여 패각층을 조사하였다. 먼저, S5W4는 3×3m로 Pit를 구획 후 패각의 잔존유무와 층위를 확인하며 체토하였다. 그리고 S8W4는 5×5m로 Pit를 구획 후 1×4m로 탐색 트렌치를 넣어 조사하여 유물 수습과 패총의 형성과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패각의 분포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S5W4와 S8W4 사이에 너비 30cm 정도의 탐색 트렌치를 넣어 조사하였다.

3) 유구 실측작업(평면, 입면, 단면, 토층은 1/10, 1/20 스케일로 조사원이 직접 실측)

4) 조사과정에서 노출된 유구와 유물은 분포범위와 출토위치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디지털카메라와 영상기기 등으로 촬영(항공촬영 포함)

5) 유적의 연대와 성격 도출을 위한 자연과학분석(AMS방사선탄소연대 측정, 유기물 분석(주거지 바닥 토양)) 진행

II. 유적의 위치와 환경

1. 자연·지리적 환경

해남군은 한반도의 최남단 서남해안의 가장 자리에 위치한 군역으로, 동북쪽만이 강진, 영암과 연결된 육지이고 3면이 모두 바다로 이루어진 반도이다. 또한 주변환경 역시 해남반도·화원반도·산이반도·금호도·어불도 등 많은 유·무인도(유인도 7, 무인도 58)로 다도해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해남군은 서북으로는 목포시, 서남으로는 진도군, 남으로는 완도군, 동으로는 강진군 등 5개 시군과 접하고 있다.

지형을 보면, 소백산맥의 지맥이 해남반도 끝까지 이어진 서남단 해안에 위치하여 완만한 구릉을 형성하고 있으나 동북부 지역에서는 흑석산(해발 650m) 등 산악지대를 이루고 있다. 해남군의 중부 및 서남부는 평야지대로 간척지, 염전, 양식장 등이 있다. 해남군의 전반적인 지질은 썩돌이라 하여 건축 토목용 재료로 사용되는 화강암과 변성화강암이 주를 이룬다. 이외에도 화산재 등이 굳어져 가공이 편리하여 토목 재료 등에 사용되는 응회암과 분암 등 복잡한 지질 구조를 이루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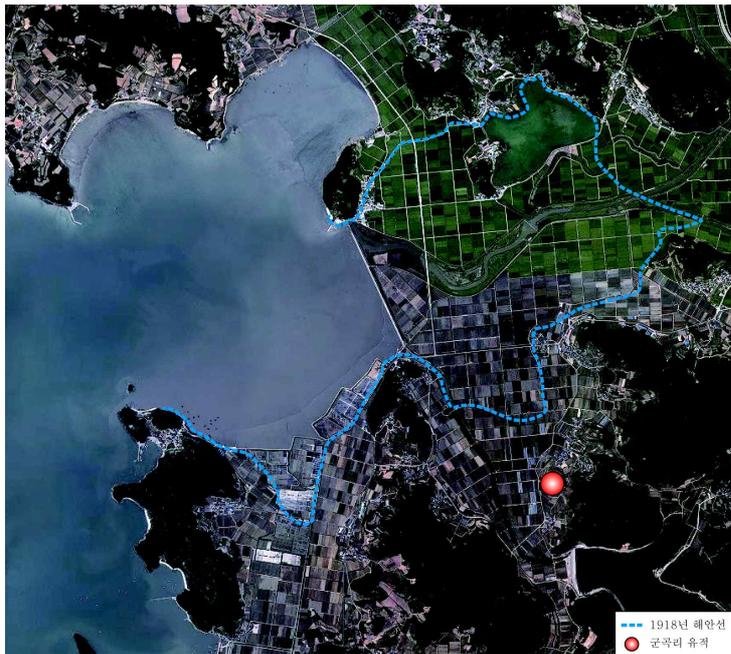


사진 1. 조사지역 해안선 및 위치도(위성사진)

있다. 이들 암석의 풍화작용과 바다의 퇴적 작용으로 이루어진 옥천평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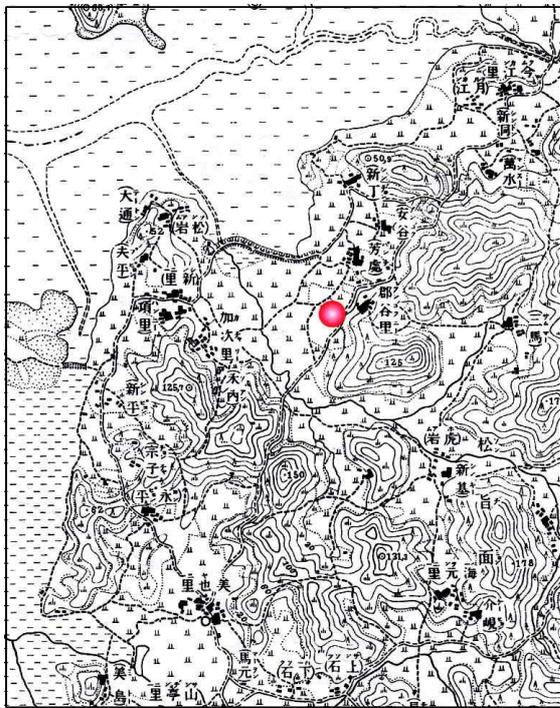
기후는 해양성기후로 온화하나 겨울과 여름의 기온차가 그다지 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황해 동부해류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 기후 중 따뜻한 편으로 대륙성 기후의 영향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과 어업에 알맞다. 평균기온은 12.9℃로 최고기온은 35℃, 최저

기온은 영하 11.6℃이며, 강수량은 1,107mm이다. 강수량의 70.1%가 6~9월에 집중되어 하계 집중강우형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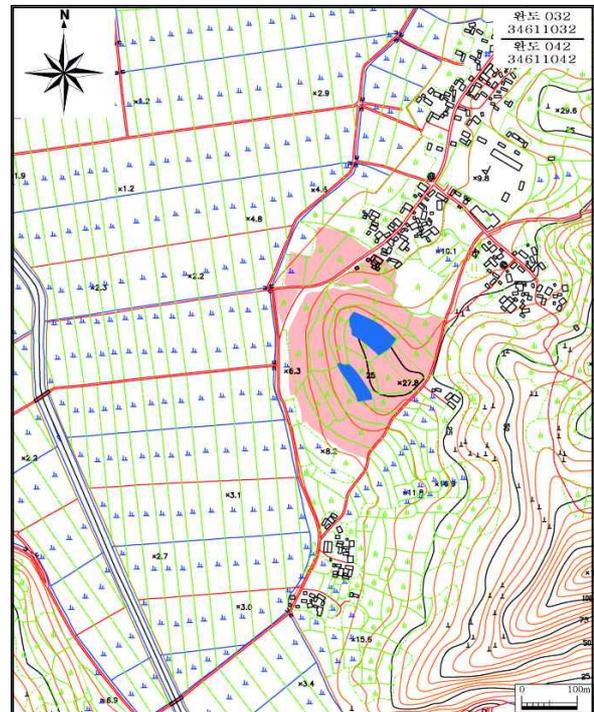
2. 고고·역사적 배경

해남군은 고대로부터 한반도 서부지역과 남부지역이 교차되는 곳으로 해로를 통한 다양한 문화 교류를 보여준 지역이다.

해남지역의 선사·고대유적에 대한 목록은 1975년¹⁾과 1977년²⁾에 각각 작성되었으나, 본격적인 종합 지표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1986년 목포대학교 박물관에 의해서 이다³⁾. 이후에도 해남군에서는 부분적으로 지표조사가 여러 차례 이루어져 새로운 유적들이 추가·보완되었다⁴⁾. 또한 해남군 전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해남군 문화유적 분포지도 작성을 위한 지표조사에서 새로운 유적이 다수 조사되었다⁵⁾.



도면 1. 조사지역 근대지도(19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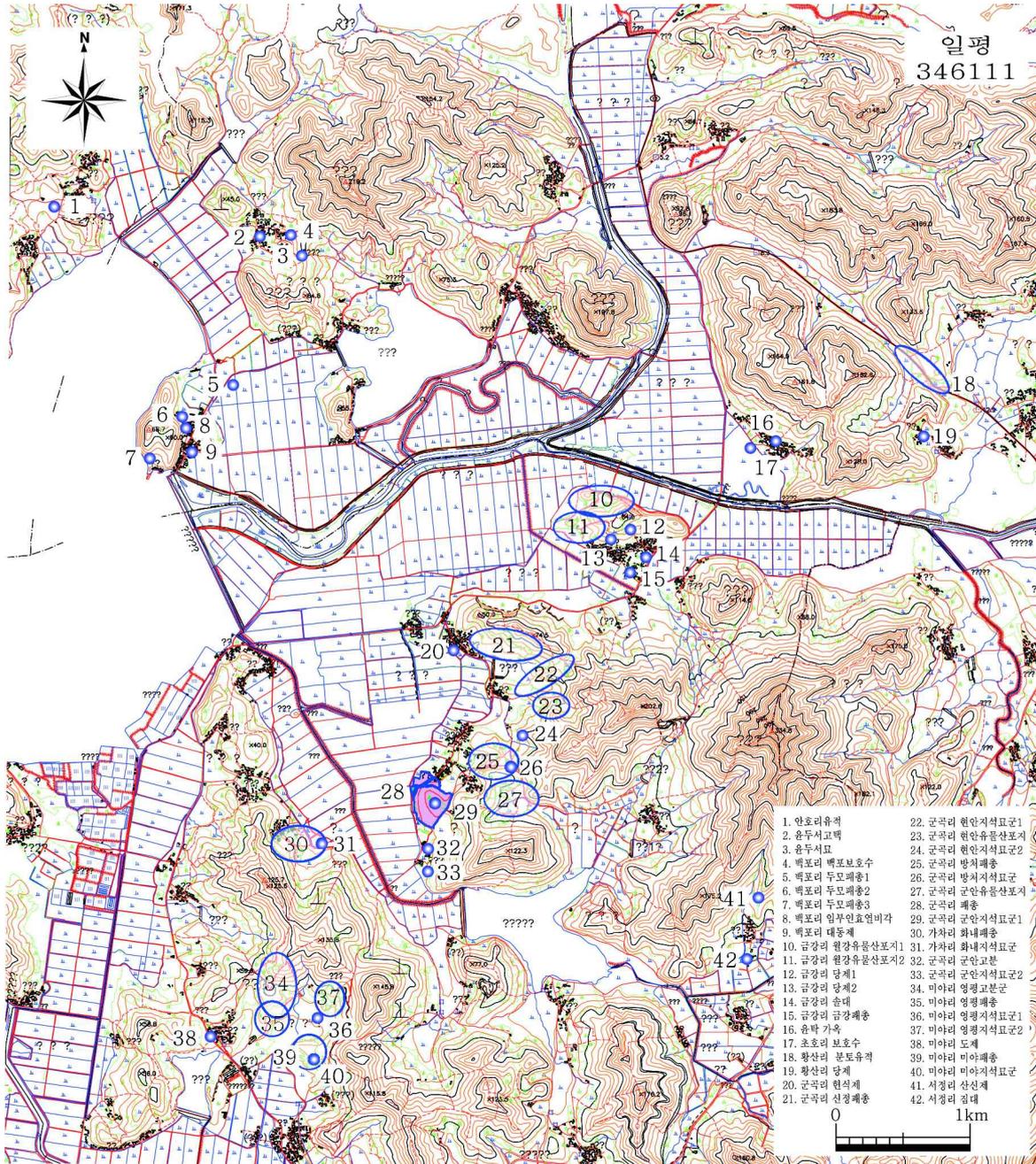


도면 2. 조사지역 위치도(1:5,000)

패총은 한반도 최남단인 해안지대를 따라 현산면과 송지면에 집중 분포하고 있

- 1) 최몽룡 1975, 『전남고고학지명표』.
- 2) 문화재관리국 1977, 『문화유적총람-전라남도』.
- 3) 최성락 1986, 「해남지방의 선사유적·고분」, 『해남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 4) 성낙준·신상호 1989, 「해남 원진리 옹관묘」, 『영암 와우리 옹관묘』, 국립광주박물관.
은화수 외 2001, 「해남 북일면일대 지표조사보고」, 『해남 방산리 장고봉고분 시굴조사 보고』, 국립광주박물관.
이영철·이은정 2002, 「전남 해남 출토 신자료 보고」, 『호남고고학보』 15, 목포대학교박물관.
- 5) 정영화·최미숙 2002, 「해남에서 발견된 새로운 유적·유물」, 『박물관연보』 11호, 목포대학교박물관.

다. 패총을 형성하는 패각은 굴껍질과 꼬막껍질이 주를 이루며, 유물은 경질무문토기와 경질찰문토기, 적갈색연질토기, 회청색경질토기 등이 주로 출토되었다.



도면 3. 해남 군곡리 패총 주변 유적 분포도(1:25,000)

이 지역에서 조사된 패총 가운데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군곡리 패총6)은 철기시

6) 최성락 1987, 『해남 군곡리패총 I』, 목포대학교박물관.
 최성락 1988, 『해남 군곡리패총 II』, 목포대학교박물관.
 최성락 1989, 『해남 군곡리패총 III』, 목포대학교박물관.

대를 대표하는 유적이다. 발굴결과 폐각층 두께가 2~3m에 이르며,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유물은 경질무문토기, 경질찰문토기를 비롯한 철기시대의 각종 토기류, 토제품, 복골, 골각기, 동물뼈, 중국 신나라때 화폐인 화천 등이 있다.

유물산포지는 해남군 전역에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발굴조사 예가 많지 않아 유적의 확실한 성격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신금유적, 황산리 분토유적, 안호리유적 등이 발굴되면서 해남지역에 살았던 고대인들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모아지고 있다. 신금유적⁷⁾에서는 주거지 75기, 수혈 15기, 주구 4기 등이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방형계이며, 규모는 4m 내외가 주류를 이루나 8m에 이르는 대형인 경우도 확인된다. 신금 주거지는 주변에 도랑을 두른 경우와 두르지 않은 경우로 대별된다. 주거지 내부시설로는 화덕시설, 벽구, 주공 등이 확인되며, 유물은 발형토기, 장란형토기, 호형토기, 시루, 주조철부, 방추차 등이 출토되었다.

황산리 분토유적⁸⁾은 삼국시대 주거지와 고분이 함께 조사된 복합유적이다. 조사지역에 따라 가지구와 나지구로 구분된다. 가지구에서 삼국시대 고분 7기, 토광묘 2기, 옹관묘 4기 등의 다양한 묘제가 확인되었고, 나지구에서는 삼국시대 주거지 57기, 토광묘 3기, 옹관묘 2기, 석실분 2기 등과 함께 청동기시대 유구들도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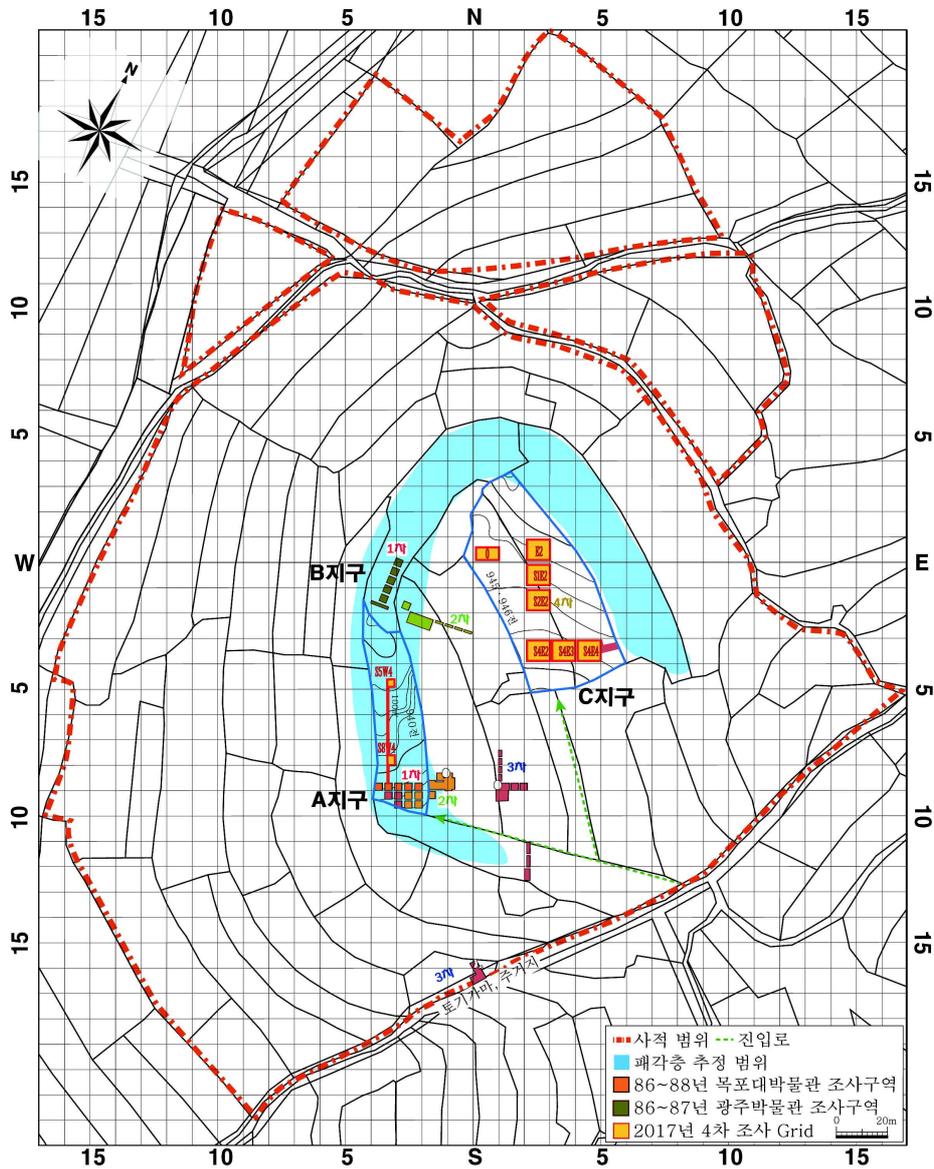
황산면 안호리유적에서는 삼국시대 50여기에 이르는 제형분과 100여기 이상의 토광묘, 옹관묘, 목곽묘가 최근 조사되었다. 아직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았지만 백포만 일대를 무대로 활동했던 해상세력이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7) 호남문화재연구원 2005, 『해남 신금유적』.

8) 전남문화재연구원 2008-2009, 『해남 황산리 분토유적 I·II』.

Ⅲ. 조사내용

해남 군곡리 패총은 송지면 군곡리 방치마을의 낮은 구릉상에 위치한다. 규모는 해발 26m의 낮은 구릉을 중심으로 길이 440m, 너비 300m, 면적은 83,569㎡에 달한다. 발굴조사는 패총의 최상단부 동쪽 구릉 평지부(945·946번지)와 중앙 경사면 하단(940번지) 600㎡를 전면 체토하고 10×10m Grid 9개를 설치하여 층위 발굴한 결과 Pit 내부에서 주거지, 가마, 수혈, 주공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면 4. 연도별 조사대상지

1. 유적 층위

1) S4E4(상) · S4E3(하)



사진 2. 동(S4E4)~서(S4E3) Grid 토층 (상 : S4E4 남편 토층, 하 : S4E3 남편 토층)

I 층 : 회갈색 점질토 + 적색사질점토로 경작층

II 층 : 적갈색사질점토로 타날문토기편 일부 포함 및 상층유구퇴적층

III 층 : 회색점토괴가 일부 포함된 적갈색사질점토-황색점질토, 유물포함층 및 2 문화층

IV 층 : 서편(S4E3)에서는 흑색 재층과 적색소토가 혼입된 가마 유구 퇴적토
동편(S4E4)에서는 재층이 포함된 회색점질토, 제1문화층 상부퇴적층

V 층 : 암갈색사질점토, 장타원형수혈 및 9호주거지 유구 퇴적토

VI 층 : 적갈색 사질점토, 적색풍화토의 재 퇴적토로 제1문화층

VII 층 : 적색 풍화토 · 기반층

2) S5W4

I 층(경작층): 표토층은 경작층으로 경사는 완만하다. 자기, 용기,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가 확인된다. 층의 두께는 24~28cm 정도이다.

II층(자연퇴적층): 적갈색사질점토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사면은 대체로 평행하다. 경질무문토기 위주에 타날문토기와 자기 편이 출토되었다. 층의 두께는 8cm 정도로 얇다.

III층(자연퇴적층): 암갈색 점토층으로 패각은 소량만 확인된다. 단면이 타원형인 점토대 토기편, 경질무문토기 위주이다. 일부 자기 편과 철못이 후 퇴적 과정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퇴적 양상은 평행하다. 층의 두께는 4~28cm 정도이며 서쪽 사면으로 갈수록 두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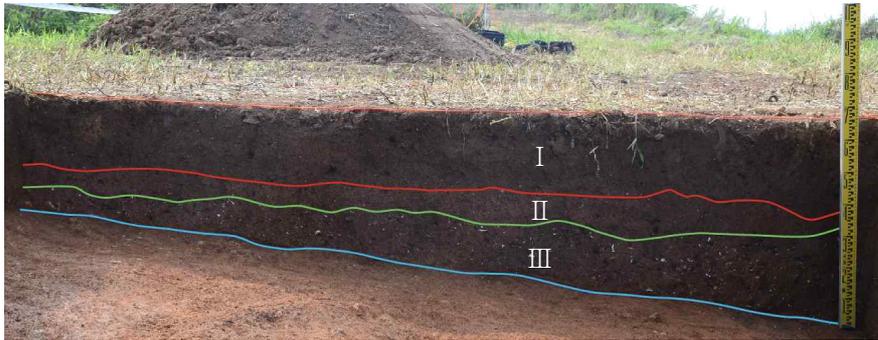


사진3. 층위도(S5W4)
I 층(경작층)
II 층(자연퇴적층)
III 층(자연퇴적층)

3) S8W4

I 층(흑갈색혼패토층): 경작으로 인해 패각이 섞여 있으며 서쪽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패각은 경도가 높은 꼬막이 주를 이룬다. 이외 패각들은 경도가 낮아 경작으로 파손되어 패각 편으로 다량 확인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층의 특징으로는 패각의 비율이 높고 목탄이 조금 섞여 있다. 층의 두께는 25~ 48cm 정도이다.

II 층(황갈색혼패토층+목탄혼입층): 황갈색 혼패토층은 층을 이루는 패각의 상대빈도가 토양보다 낮다. 패각의 종류로는 꼬막이 주를 이루며 굴은 소량으로 확인된다. 층의 특징으로는 일정부분 목탄이 혼입되어 있으며, 목탄과 사질토가 조금 섞여 있다. 유물은 타날문토기편이 주를 이루고 경질무문토기와 경질찰문토기가 소량 확인된다. 층의 두께는 17cm이며, 서쪽 사면으로 4m 정도 이어지다가 끊긴다.

III 층(밤색점토층): 밤색 점토 block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패각은 소량이다. 유물은 타날문토기편과 경질무문토기편이 확인된다. 층의 두께는 25cm 정도이다.

IV 층(흑갈색점토층): 목탄과 패각 그리고 주황색 점토 block이 소량 포함되어 있다. 이 층은 동쪽 사면에서는 얇게 형성되어 있다가 서쪽 사면에 이르러 경사가

급하다. 층의 두께는 최대 35cm 정도이다.

V층(암갈색점토층): 최하층은 사질이 혼입된 암갈색 점토층으로 일부 붉은색을 띤다. 이 층에서는 서쪽 사면에서만 타날문토기 편이 일부 확인된다. 층의 두께는 최대 37cm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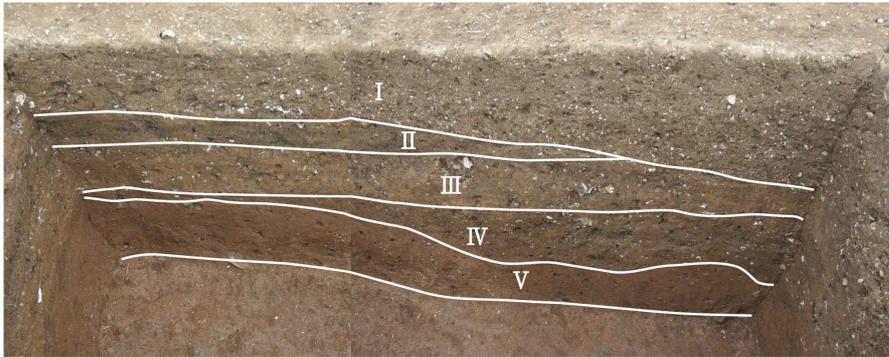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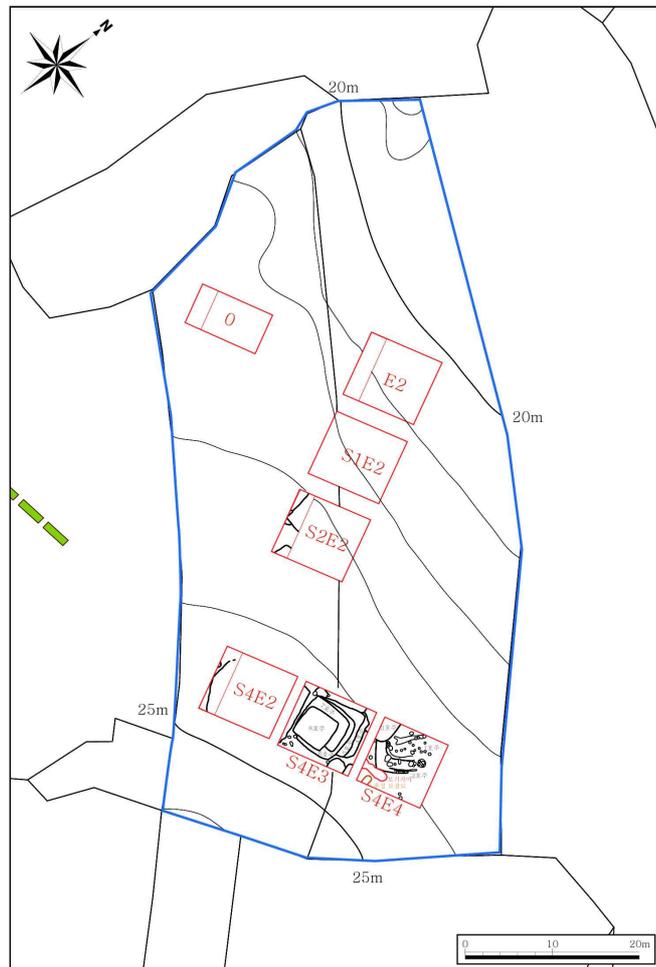


사진4. 층위도
(S8W4)
I 층 흑갈색혼폐토층
II 층 황갈색혼폐토층
+목탄혼입층
III 층 밤색점토층
IV 층 흑갈색점토층
V 층 암갈색점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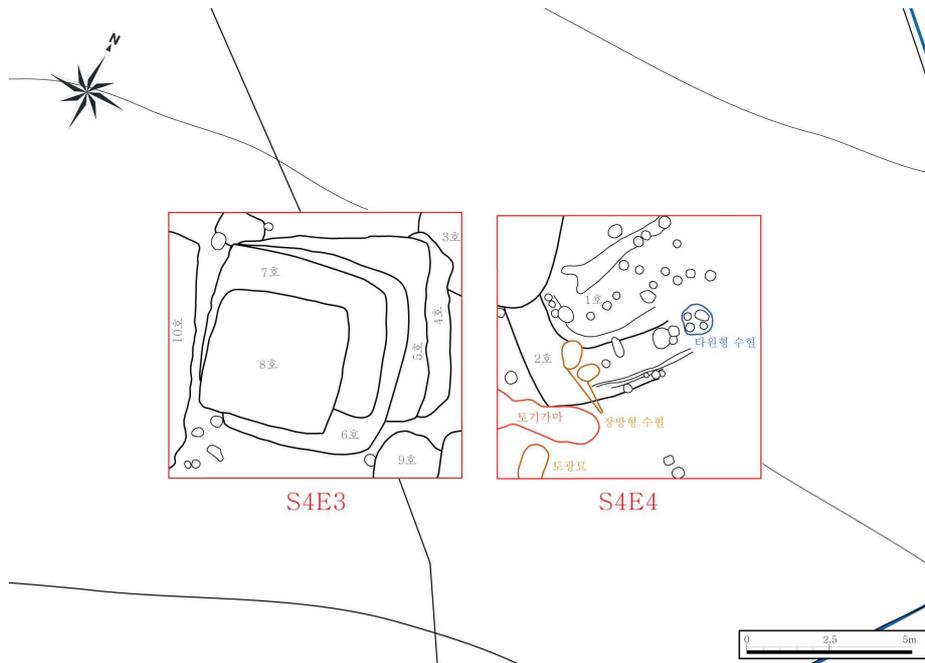
2. Pit별 조사내용



도면 5. Pit 배치도(구릉 평지부)

1) S4E4 · S4E3

조사결과 두 Pit에서 주거지, 장방형 수혈, 수혈, 토기가마 등의 다양한 유구가 조사되었다. 특히 주거지는 축조와 폐기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확인된 10여기의 주거지 중 8기가 중복되어 있다. 또 선행주거지를 후행주거지가 파괴하며, 들어서 네 벽이 온전이 남아 있는 경우가 드물다. 하지만 내부시설로 부뚜막, 벽구, 주공 등을 통해 주거지의 구조를 조금이나마 파악할 수 있다.



도면 6(上) · 사진 5(下). S4E3(좌), S4E4(우) 유구배치도 및 전경

(1) 주거지

평면형태는 중복관계가 심해 정확한 형태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장방형 내지 방형으로 추정된다. 장축방향은 북-서나 북-동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규모는 7호(23m²)와 8호(16m²)만이 확인된다. 내부시설로는 부뚜막, 벽구, 벽체, 주공 등이 조사되었다. 부뚜막은 5호, 7호, 8호에서 확인된다. 부뚜막의 위치를 살펴보면 5호 주거지 동벽, 7호와 8호 주거지는 북벽에 위치한다. 점토벽체와 솔받침이 잔존해 있으며, 전체적인 형태는 방형으로 추정된다. 벽구는 1호와 2호 주거지에서 확인되며, 후대의 훼손으로 전체적인 형태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벽구 내부에 주혈이 남아 있다. 벽체는 5호·7호·8호 주거지에서 발견되며, 내부에 점토를 바른 흔적과 바깥쪽에서 점토가 무너져 내린 흔적이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주거지의 선후관계는 1호·2호 →3→4→5→6→7→8호로 동에서 서쪽으로 축조와 폐기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유물은 호형토기, 시루, 장란형토기, 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표 8> 주거지 현황표

호 수	평면 형태	규모(cm)				장축	내부시설	출토유물	비고
		길이	너비	깊이	면적(m ²)				
1	방형계	(322)	(202)	9	-	-	주공, 타원형 수혈	골촉, 연질타날문토기편, 경질무문토기편	
2	방형계	(445)	(367)	15	-	N48° W	주공	연질타날문토기편, 경질무문토기편	
3	방형계	(432)	(106)	24	-	E-S	-	장란형토기, 발형토기	
4	방형계	(557)	(64)	12	-	N21° E	-	장란형토기	
5	방형	(690)	551	29	-	N19° E	주공	호형토기, 시루편, 장란형토기	
6	방형	597	(574)	12	-	N7° E	주공	타날문토기편	
7	장방형	560	417	13	23	N85° W	부뚜막, 주공	단경호, 방추차	
8	방형	410	396	29	16	N86° W	부뚜막, 주공	타날문토기편, 공이, 장란형토기, 갈돌, 갈판	
9	방형계	(188)	(119)	-	-	N86° W	-	-	조사×
10	방형계	(680)	(90)	-	-	N17° E	-	-	조사×

* 면적 추정 가능한 주거지만 표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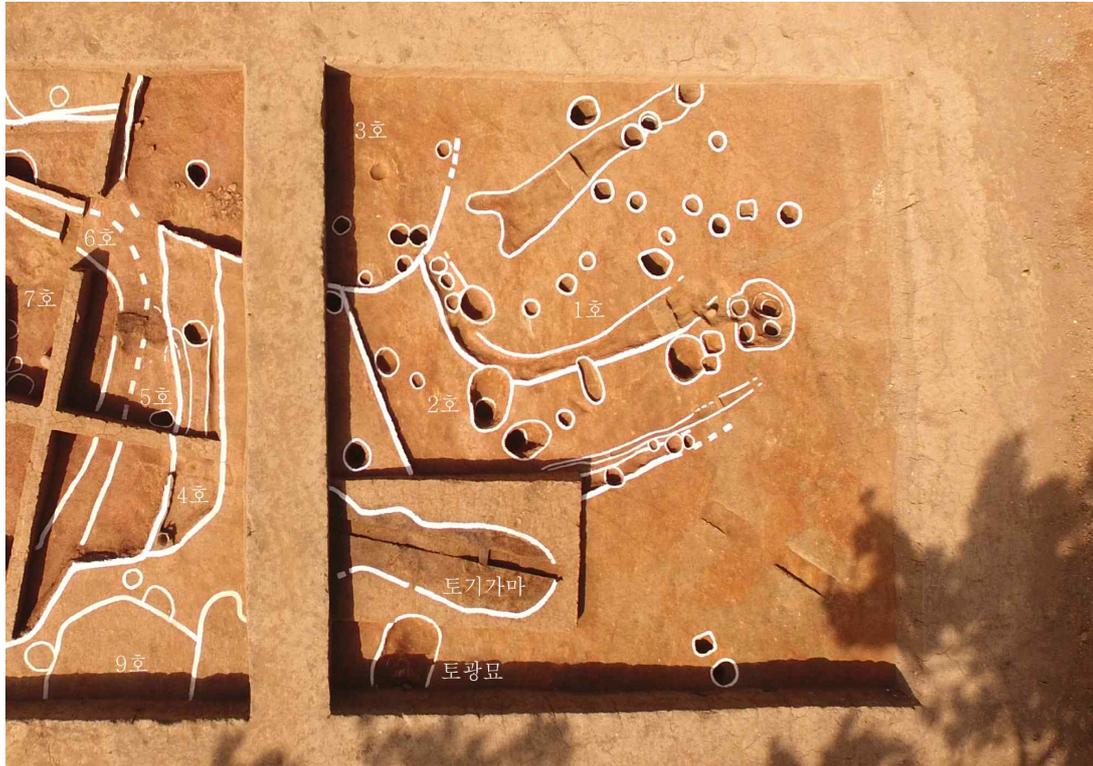


사진 6. 1~3호 주거지, 토기가마, 장방형 수혈 전경(남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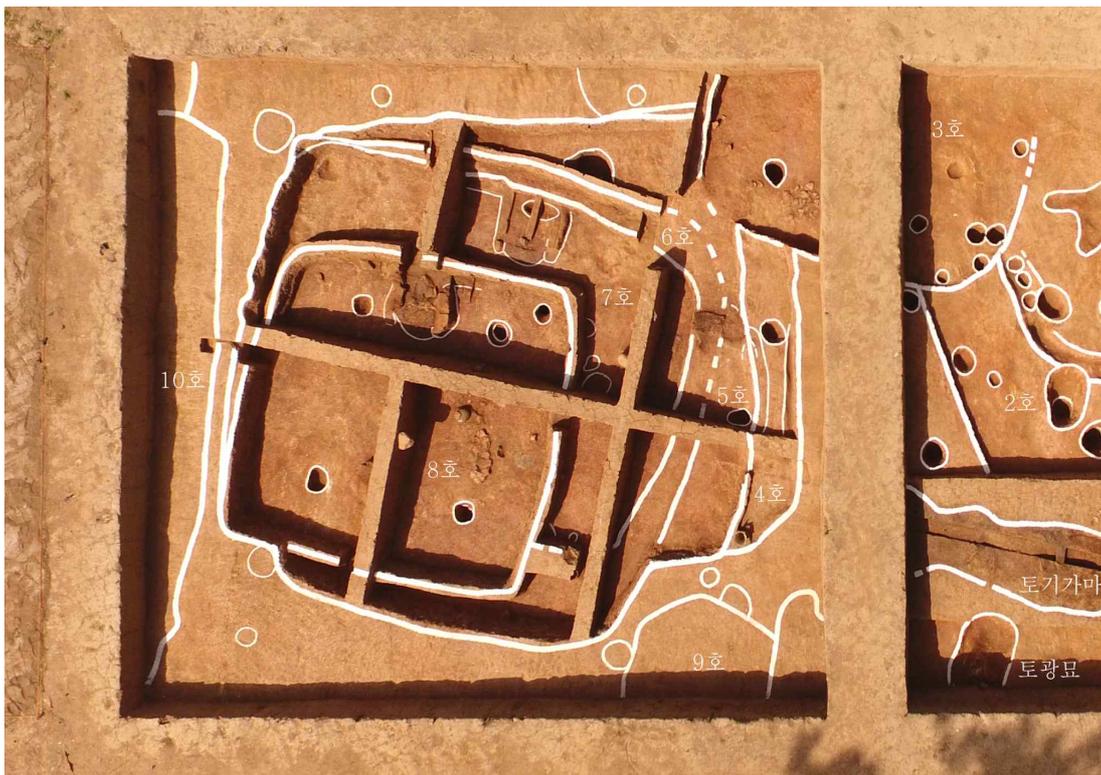


사진 7. 3~10호 주거지 전경(남에서)



사진 8. 부뚜막(7호 좌, 8호 우)



사진 9. 출토유물(上 5호, 下 좌 7호, 우 8호)

(2) 토광묘

S4E4 Pit 남동쪽 모서리부분에서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되나 동쪽벽면이 독에 포함되어 있어, 전체적인 형태는 파악할 수 없다. 잔존규모는 길이 98cm, 너비 70cm, 깊이 31cm 이며, 장축방향은 N91° W 이다. 내부는 패각류(굴, 꼬막, 백합 등)로 채워져 있었으며, 호형토기 한점이 출토되었다.



사진 10. 토광묘



사진 11. 출토유물(호형토기)

(3) 수혈

S4E4 Pit 중앙부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타원형, 방형으로 타원형은 동-서방향으로 2개가 인접해 있다. 타원형은 한쪽이 비스듬히 경사져 있고, 다른 한쪽은 50cm 깊이로 원형수혈이 굴착되어 있다. 방형은 내부에 4개의 원형수혈이 확인되며, 남쪽(2개)은 수직으로 동쪽(2개)은 비스듬하게 30~50cm 깊이로 굴착되어 있다. 흔히 이러한 형태를 용도미상의 수혈이나 이형토갱으로 부르며, 해남지역에서는 최근 조사된 화산면 안호리유적에서 확인되었다.



사진 12. 타원형수혈



사진 13. 방형수혈

(4) 토기가마

S4E4 Pit 남동벽에 치우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으로 장축방향은 남북이다. 규모와 내부구조는 가마의 바닥만이 남아 있을 정도로 훼손상태가 심해 파악할 수 없다. 현재 소결된 바닥면 일부와 소토, 목탄만이 확인되며, 유물은 소량의 연질토기편과 벽체편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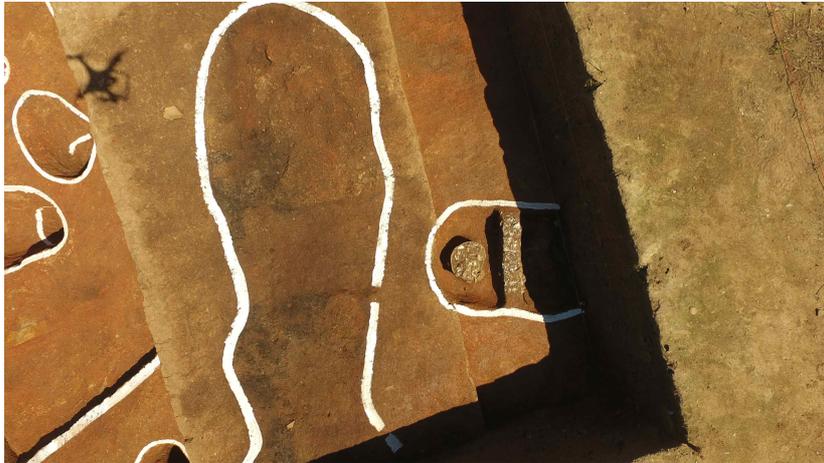


사진 14. 토기가마

2) S4E2 · S2E2 · S1E2 · E2 · 0

유구의 분포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각 Pit에 2×9m로 탐색 트랜치를 설치하여 기반층까지 유구의 존재유·무를 확인한 결과 바닥면에서 주거지 흔적과 용도미상의 수혈유구 등이 확인되었다. 이후 표토층에 유구와 유물이 산재할 것으로 추정되어 각 Pit별로 전면 제토를 시행하였으나 토기편과 석기편만이 수습되었다.



사진 15. S4E2 · S2E2 · S1E2 · E2 · 0 Pit 전경



사진 16. S4E2 탐색 트렌치



사진 17. S2E2 탐색 트렌치

3) S5W4 · S8W4

패각층의 형성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였으나 문화층이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Pit의 최하층에서 연질토기편, 회청색경질토기편, 자기편 등이 뒤섞여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패총의 마지막 기층인 기원후 2세기후반 이후에 퇴적된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18. S5W4 · S8W4 전경



도면7. Pit 배치도(중앙 경사면)



사진 19. S5W4



사진 20. S8W4

IV. 조사단의견서

사적 제449호 해남 군곡리 패총은 1986년부터 1988년까지 3차례 발굴조사를 통하여 패각층, 주거지, 토기가마 등과 토기류, 토제품, 철기, 석기, 골각기, 복골, 장신구, 화천 등이 출토되었다. 이를 통해 전남지역 철기시대 편년의 근간을 마련하고, 중국-한반도-일본열도를 연결하는 교류의 흔적을 발견하여 우리나라 철기시대를 대표하는 유적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과거 패각층을 중심으로 한 발굴은 바닷길을 통한 교류의 흔적, 각 시기별 유물의 변화상, 먹거리, 장신구 등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명확한 유구가 확인되지 않아 당시의 생활상을 복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를 반영하여 현 조사에서는 구릉의 상단부를 중심으로 한 발굴조사를 통하여 당시 군곡리 사람들의 주거형태를 파악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발굴결과, 구릉의 동쪽 정상부에서 축조와 폐기가 북에서 남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10여기의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특히, 1호에서 8호 주거지 중 네벽이 온전이 남아 있는 주거지가 2기에 불과할 정도로 중복관계가 매우 심하다. 평면형태는 방형계로 점토벽체와 부뚜막, 벽구 등의 시설이 확인되며, 유물로는 장란형토기, 호형토기, 시루, 방추차 등이 출토되었다.

또, S4E2·S2E2의 탐색 트랜치 바닥면에서도 주거지와 수혈 등의 유구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구릉의 정상부를 중심으로 동편 야산의 평탄부까지 200여기 이상의 대규모 집단 취락지가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2) 구릉 중앙(경사면)에서는 패각층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로 보아 패각층은 구릉의 중앙(경사면)을 제외한 남쪽과 북쪽 구릉의 경사면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번 조사를 통하여 구릉의 정상부에 광범위하게 다양한 유구가 분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패각층의 마지막 기층인 V기층(기원후 2세기후반 ~ 3세기후반)이후에도 구릉의 정상부를 중심으로 기원후 5세기까지 문화층이 존재함을 밝힐 수 있었다.

4) 또한 해남 군곡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고대 해상세력의 주거형태나 집단 취락지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마을 경관을 복원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유적의 일부만이 조사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정확한 패총의 범위를 파악하고 생활유구가 집중되는 구역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시·발굴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7. 11.

목포대학교박물관장



[별지 제1호 서식]

출 토 유 물 현 황

1. 출토유물 목록

1-1 총괄표

재질별 구분	주요 출토 유물	수 량	비 고
1. 금속		·	
2. 옥석유리		·	
3. 토도		12점	
4. 골각		1점	
5. 목죽초칠		·	
6. 기타		14박스	
계		13점/14박스	

* 재질별 분류는 금속류, 옥석유리, 토도, 골각, 목죽초칠, 기타로 분류할 것.

1-2 세부목록

유 물 목 록									
일련번호	유물명	수량 (점)	분 류		크 기(cm)			사진번호	비 고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1	발형토기	1	토도	삼국	9.5	13	8.6	17HG-약 01	
2	양이부개	"	"	"	3.4	13	9.4	17HG-약 02	
3	개	"	"	"	3.5	12.7	8.5	17HG-약 03	
4	발형토기	"	"	"	14.4	.	.	17HG-약 04	
5	장관형토기	"	"	"	(31.5)	.	.	17HG-약 05	
6	장관형토기	"	"	"	(25)	.	.	17HG-약 06	
7	시루	"	"	"	(17)	.	(11.0)	17HG-약 07	
8	발형토기	"	"	"	11.8	.	7.9	17HG-약 08	
9	호형토기	"	"	"	29	17.5	.	17HG-약 09	
10	장관형토기	"	"	"	44	.	.	17HG-약 10	
11	골촉	"	골각	"	3.9	0.5~1	.	17HG-약 11	
12	호	"	토도	"	(20)	.	.	17HG-약 12	
13	대각편	"	"	"	(6)	.	5.5	17HG-약 13	
14	기타	1박스	"	"	.	.	.	17HG-약 14	
15	"	"	"	"	.	.	.	17HG-약 15	
16	"	"	"	"	.	.	.	17HG-약 16	
17	"	"	"	"	.	.	.	17HG-약 17	

유 물 목 록									
일련번호	유물명	수량 (점)	분 류		크 기(cm)			사진번호	비 고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18	기타	1박스	토도	삼국	.	.	.	17HG-약 18	
19	"	"	"	"	.	.	.	17HG-약 19	
20	"	"	"	"	.	.	.	17HG-약 20	
21	"	"	"	"	.	.	.	17HG-약 21	
22	"	"	"	"	.	.	.	17HG-약 22	
23	"	"	"	"	.	.	.	17HG-약 23	
24	"	"	"	"	.	.	.	17HG-약 24	
25	"	"	"	"	.	.	.	17HG-약 25	
26	"	"	옥석	"	.	.	.	17HG-약 26	
27	"	"	골각	"	.	.	.	17HG-약 27	

2. 출토유물 사진



17HG-약01



17HG-약02



17HG-약03



17HG-약04



17HG-약05



17HG-약06



17HG-약07



17HG-약08



17HG-약09



17HG-약10



17HG-약11



17HG-약12



17HG-약13



17HG-약14



17HG-약15



17HG-약16



17HG-약17



17HG-약18



17HG-약19



17HG-약20



17HG-약21



17HG-약22



17HG-약23



17HG-약24



17HG-약25



17HG-약26



17HG-약27